

한국 내 '원정 출산' 매년 늘어



▲ 구급대원이 구급차에서 출산한 산모 옆에서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bc뉴스 캡처

한국에서 집 근처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몇 시간씩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출산하는 산모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여러 대책 내놓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13일 'jibc'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태운 구급차가 병원까지 1시간 넘게 이동한 경우는 2020년보다 2.5배 이상 늘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곳을 '분만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산부인과를 새로 만들거나, 인근 병원 의료진이 방문해서 진료하게 하는 '순회 산부인과'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부터 순회 산부인과 지원금을 받을 병원을 4번이나 공모했지만, 이 중 3번은 어느 병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버스 타고 이동을 해야 하고 버스에는 기계도 비치해야 하는 등 의사 개인이 아닌 병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대책이어서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분만 자체가 사고 위험도도 크고 어려운 업무인 만큼 취약지만이 라도 의료 수가를 조정하거나 지원금 상한선을 높이는 등 현실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은 월세, 세입자는 전세 선호

집주인 10명 중 6명은 임대차 유형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입자들은 전세를 선호했다.

1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직방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 63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집주인인 응답자의 63.9%가 월세를 선호한다고 답해 전세를 선호한다는 응답(36.1%)보다 월등히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진행된 조사에서는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46.5%)이 전세를 선호하는 집주인(53.5%)보다 적었는데 1년 새 더 많아졌다.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가 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 전월세 매물 광고가 붙어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사진=m.mk.co.kr

만기 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26.1%)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6.5%) ●임대수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높아서(4.3%), 기타(4.3%)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입자들은 작년보다 '전세' 선호 거래 응답 비율이 늘었다. 전세 세입자의 87.6%, 월세 세입자의 48.6%가 전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작년에는 각각 85.4%, 37.9%였다.

세입자가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월 부담해야 하는 고정지출이 없어서'가 55.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월세보다 전세대출이자 부담이 적어서(25.3%)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발판이 돼서(8.4%)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을 통한 대출상품이 다양해서(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능 'n수생' 비율 28년 만에 최고

오는 11월16일 치러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엔(n)수생'으로 불리는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응시자가 28년만에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날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2024학년도 수능 지원자는 50만4,588명으로 재학생 32만6,646명, 졸업생 15만9,742명, 검정고시생 1만8,200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지원자 가운데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의 비중은 35.3%다.

이는 수능 초기였던 1995학년도(38.9%) 1996학년도(37.3%)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가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교과서 밖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을 정하자, 상대적으로 수능 전형에 강세를 보여온 졸업생 응시자



▲ 작년 11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 중인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선택 과목에서는 높은 표준점수를 받기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이 두드러졌다. 특히 수학 영역에서는 미적분 선택자가 23만5,100명(49.2%)으로 확률과통계(22만3,550명) 선택자를 처음 앞질렀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치러진 2022학년도부터 미적분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불리하다는 인식이 자

리 잡은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문이과 통합수능의 본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이과 통합수능은 원래 학생 본인의 선호 과목에 응시하라는 것이지만, 수험생들은 더 높은 표준점수를 얻기에 유리한 과목에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